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새마을의 날 기념
3R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부인군협의회, 부안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안군지부는 최근 새마을운동 47주년 새마을의 날을 맞아 3R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됐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 남여 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장통 속의 애물단지인 헌옷 11,600kg를 예술화관 주차장에서 읍면별로 수거하여 저 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펼쳤다.

김갑근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 지구촌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어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고장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려는 제2새마을운동의 공감대를 자원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고창군이 벼려지던 빗물 이용 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0일 전했다.

군은 지난해 5월 2톤 저류용분뇨 소형빗물이용시설을 고장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물해도 공공시설 등에 1개소를 선정해 설치할 계획이다.

소형빗물이용시설은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류탱크에 저장했다가 조경관리, 청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 등의 효과가 크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보육정책위원 신규 위촉

정읍시는 10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 당연직 1명, 보육 전문가 1명,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의 대표자 등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보육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보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 정읍의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위 원회가 제안하고 건의하는 시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사 달님약수 등 정읍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민들 이용 만족도 높아

매일 540여 톤 13만5000원 상당 무상 공급… 생수 구입 부담 덜어줘

정읍사 달님약수와 수성근린약수, 내장산 귀갑약수 등 정읍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시민들의 생수 구입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를 급수시설이 매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생수의 양은 540여 톤으로 시는 매일 이곳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생신령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수가 격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1억3500만원부터 많게는 2억7000만원에 이른다. 시중 생수 가격은 20L당 5000원에서 1만원 선이다. 특히 시는 연 4회의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물 공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수질검사 결과 ‘안전’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급수시설 관리와 관련, 시 여성민방위대는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설물 청소,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등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읍·동 지역에 자체 개발한 4개소와 학교 및 아파트가 소유한 8개소 등 모두 12개소로 1일 1815톤의 생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전쟁과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시대 발생으로 상수원 공급 중단 시 15만 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음용과 생활용수의 소요량을 1일 3750톤으로 보고 민일의 사태 발생 시 식수수에 대비해 권역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여 부족한 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충무공원과 정읍생활체육공원에 이순신약수와 사발통문약수를 개발하고 내년에 덕천면 황토현진지와 산내면 구절초재마공원에 전봉준약수와 구절초약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읍사 달님약수의 급수대와 외국어 설화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30% 절수·절전효과와 함께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김생기 시장은 “질 좋은 샘물을 개발해 시민 각 가정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생수를 공급하고 민방위시대에 대비하겠”며, “생명의 근원인 산과 산문화를 발굴·전승하여 산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싱그러운 정읍의 봄축제, 12일까지 진행

벚꽃축제·전라예술제 개최

2017 정읍벚꽃축제 등 정읍의 싱그러운 봄축제가 지난 7일 개막식을 갖고 오는 12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읍천 어린이축구장과 벚꽃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벚꽃축제와 전라예술제, 자생화 전시회와 자생차 페스티벌이다.

지난 7일 저녁 7시 열린 개막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장, 김경기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북도의회 이학수의원과 정학수의원 등 내외빈과 시민

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먼저, 벚꽃축제가 ‘벚꽃이’ 내리는 정읍이 벚꽃한愛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축제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첨예형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1일부터 시작된 벚꽃 야간 경관 조명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고, 행사기간 내 버스킹 공연과 버블쇼 빼어놓을 풍선미팅, 석고마임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56회 전라예술제도 뿐만 깊은 전년왕도 꽃과우자 전라예술’을 주제로 펼쳐진다.

(사)한국예술전시회가 주최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예술제는 첫날 11시 전북민속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연극·무용·국악·공연이 매일 오후 2시, 7시 반에 전면 어린이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또한 미술과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시립미술관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오후 4시 정읍CCV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13회 우리꽃·자생화 전시회와 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상동지구대-자율방범대, 벚꽃 축제 기간 합동 순찰 강화

정읍 상동지구대에서는 4월7일~12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정읍 벚꽃축제 기간을 맞아 정읍시 벚꽃로 일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이 상동지구대에 안전하고 즐거운 벚꽃축제를 위해 관내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또한 이번 벚꽃축제를 관리하기 위해 온 행락객들이 축제를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시간대에 맞춰 상동지구대와 자율방범대가 교통안전 지도 및 절도예방 등 축제기간에 반복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순

찰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동지구대 김수찬 대장은 “벚꽃 행락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박차를 기하여 즐거운 벚꽃놀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지역 농·축협 협동 ‘이동상담실’ 운영

농업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 피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고창지역 농·축협이 합동으로 최근 고창농협 문화센터에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농협은 98년부터 농협 이동상담실을 실시하여 접두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1,500여회에 걸쳐 전국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157천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있으며, 금년도에도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 전국적으로 175회 이상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다다청소년봉사단 발대식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는 지난 8일 부안 문화의 전당 1층 공연장에서 관내 고등학생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다 청소년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다다 청소년봉사단은 부안여자고등학교(교장 김경남) 봉사동아리 ‘카리스’ 16명과 부안 관내 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봉사단으로 카리스 박민우 지도교사가 ‘다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라는 주제로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의 행복한 지역공동체 봉사동아리 유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함께 다양한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으며 발대식 후 부안오복마실 축제 때 사용될 모자집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옥순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나라의 미래이고 부안의 힘인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강한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에도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으묘한 맛에 뒤집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서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회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회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회 | 750ml 1ea/12%

GIFT SET 4회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회 | 375ml 5ea/13%

GIFT SET 6회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봉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